



제8대 교수회 알림톡 #2 _발행: 2021년 7월 21일(수)

교수회 논평

알려드립니다!



☑️ 총장의 특정 대통령 후보 캠프 참여를 우려한다.

김상호 총장이 정세균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바른 대통령 찾기 전국 교수 모임’의 상임 대표로 활동하는 사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시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위기 탈피를 위해 취업률 올리기에 총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모두 전념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총장이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모임 상임 대표로 활동하는 게 과연 옳은 처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당혹감과 우려를 교수회로 전달하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 문제가 없겠으나 총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교수 우려의 본질이다.

법인 정관 제81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이다.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총장은 특정인을 대통령 후보로 지원하는 외부 활동으로 보도되기보다는 입학과 취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여론이다.

총장이 특정인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만큼 우리 대학의 사정이 한가하거나 여유 있지 않다. 우리 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첨부] 조선일보 및 새전북신문 기사



▲ 조선일보 7월 1일자



▲ 새전북신문 7월 19일자

정치 >
정치 일반

전국 대학교수 1200명 “경제 대통령 정세균 지지”

1일 공개 지지 선언
丁 싱크탱크 역할하게 될 듯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7.01 14:1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13개 대학 교수가 참여한 ‘바른 대통령 찾기 전국 교수 1260명’ 모임이 1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대한민국의 바른 대통령, 국민이 잘 사는 일류 국가의 경제 대통령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전국 상임대표를 맡았고** 이승훈 세한대 총장,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 김시오 경북대 부총장,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 등 30명이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입견이나 알팍한 감성에 좌우되어 선택한 지도자는 참담한 시행착오로 국민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게 한다”며 “국민이 냉철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했다.

모임은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가난을 이겨내고 소상공인의 아픔을 스스로 체험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품격 있고 강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밝혔다. 대기업 임원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내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회의장·국무총리 시절 외교 경험도 풍부한 ‘경제 전문가 정세균’의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은 외교·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예술·교육, 산업·경제·부동산, 청년·시니어·일자리 등 7개 상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정 전 총리에게 정책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중 기자



정세균 후보와 교수대표 37인 화상 회의 싱크탱크 본격 가동

바른대통령찾기 전국교수 1260인 모임 공동대표 37명 참여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가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싱크탱크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정 전 총리 지지를 선언한 바른대통령 찾기 전국교수 모임 공동대표 37명은 지난 17일 비대면 화상 회의 줌(zoom)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전국상임대표인 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바른 대통령 만들기 모임이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교수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은 정책제안을 토론했고 잘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국민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행복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인 활동과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장하진 상임고문(제1대 여성가족부, 제3대 여성부 장관)의 기조발언 후 정책토론회에서 교수 대표들은 "여성가족부는 업무와 예산이 더욱 확대되는 형태로 존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여성 취업률 향상, 돌봄의 사회적 역할 강화, 성범죄 예방 등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기준 교수(공동대표, 경희대)는 기조발언에서 “통일부 명칭을 통일협력부 또는 통일경제부 등으로 개칭하여 한반도 번영과 평화의 핵심 정부조직으로 자리매김하여 나아가는 것이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식 교수(상임고문, 전북대)는 ‘청년정책으로 정부부처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 20% 할당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윤하 상임공동대표(전 포스텍 부총장)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 활동을 넘어서 온라인 경험이 현실세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과 연결되는 개념을 도입한 ‘메타버스(metaverse)’ 산업에 대한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정완태 상임공동대표(조직·총무)는 “참여 교수의 전공분야와 희망에 따라 △산업·경제·부동산·노사 △과학기술·정보통신 △청년·시니어 일자리 △보건·의료·복지 △외교·안보·국방 △환경·농업·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문화·예술·관광 등 7개 분과위원회로 분류, 정책제안을 받아 국민이 행복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모음집을 만들어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1-07-20 3면

<http://sjbnews.com/718960>